

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7. 5(주)

■ 인도자 [예 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1.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꺾일 때 주가 붙드네
 2.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3.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4.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 후렴 :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후면 참조]

대표자가 대표로 낭독하거나 식구별로 교대로 낭독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 결단 및 축복기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별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마 침 [주기도문]

■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3:1~12]

■ 말 씀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11절). 사실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1~6절)

나그네로서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사람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불신 남편을 향한 그들의 행실은 불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같아야 합니다. 그 행실이 단장이어야 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7절)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당시 문화와는 동떨어진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특성인 ‘연약함’과 독특한 역할인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이에 어울리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선을 추구하라(8~12절)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 사람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든 이용하려 하지 말고 자기 곁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통감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조율하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말입니다.